

농어촌공사 농진청, '농업기술 국제개발협력(ODA) 협의체' 구성

- 긴밀한 협조로 성공적인 '케이(K)-라이스벨트사업' 기대 -

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진청은 성공적인 '케이(K)-라이스벨트사업' 추진을 위해 「농업기술 국제개발협력(ODA) 협의체」를 구성하고, '제1차 협의회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K-라이스벨트사업: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다.

이번 협의체는 국가별 벼 종자생산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 인프라(양수장, 경지정리, 용배수로 등)를 조성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농진청이 '케이(K)-라이스벨트사업'을 함께하게 되면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관 간 상호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공사, 농진청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이번 '제1차 협의회'에서는 ▲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▲협력과제 선정 ▲추진 방향 협의 ▲사업 현황 공유 ▲신규 참여국 사업계획 등 협력체계 구축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두 기관은 앞으로 분기별 정기회의를 비롯한 상시 소통으로 현황을 공유하고, 농업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융·복합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박태선 기반사업이사는 “이번 협의체가 기관의 기술과 역량을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.”라며 “한국 농업의 강점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글로벌사업처	책임자	부 장	손혁준 (061-338-6521)
	농식품국제개발협력센터	담당자	대 리	윤민지 (061-338-6528)